**UN 주거 전문가, 한국의 주거권 전환 촉구**

서울/제네바 (2018년 5월 23일) – UN 전문가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는 대한민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에 주거 및 노숙인에 대한 접근방식을 현행 인권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레일라니 파르하, 적정주거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최빈국이었던 한국이50년 만에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고 현재 전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된 것에 주목하였다.

“많은 국민들의 주거조건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의제 목표11번(SDG 11)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정책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정책에 있어서 일부 중요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10일간의 방한조사를 종료하는 주거권 특보는 말했다.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개인과 가족이 쫓겨나갈 수 밖에 없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특보는 덧붙였다.

파르하 특보는 정부가 전면철거방식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을 시작했지만,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현행 법체계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퇴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및 저소득 가구에게는 대도시의 주택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임에 놀라움을 표했다.

“한국은 가계부채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수위를 달리고 있고, 거주의 안정성 문제가 심각하다. 완전히 기준미달인 집에 살면서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5제곱 미터를 넘지 않는 비좁은 공간에 단기 임대로 살면서 집주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은 주거에 있어서의 인권 보호를 모든 취약계층에 확대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

현재, 장애인들은 장애인인권협약에 따른 정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성소수자(LGBTI)들은 주거 및 삶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차별을 겪고 있고 정부로부터 보호의 대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에서 요구하는 주거 및 기타 사회급여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거주의 안정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쪽방과 고시원 등 극도로 적정치 못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전환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상품으로써의 주택이 아니라 인권으로써의 주거개념으로의 전환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권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거에 관한 포괄적 인권기반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거권 특보는 덧붙였다.

끝.

Find the comprehensive end of mission statement at: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116&LangID=E*](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116&LangID=E)

**Ms Leilani Farha**i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https://www.ohchr.org/EN/Issues/Housing/Pages/HousingIndex.aspx)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on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in this context. She took up her mandate in June 2014. Ms Farha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GO Canada without Poverty, based in Ottawa. A lawyer by training, for the past 20 years Ms Farha has worked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 the most marginalized groups and on the situation of people living in poverty.

The Special Rapporteurs are part of what is known as the [Special Procedures](https://www.ohchr.org/EN/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 of the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Procedures, the largest body of independent experts in the UN Human Rights system, is the general name of the Council’s independent fact-finding and monitoring mechanisms that address either specific country situations or thematic issues in all parts of the world. Special Procedures experts work on a voluntary basis; they are not UN staff and do not receive a salary for their work. They are independent from any government or organization and serve in their individual capacity.

UN Human Rights country page: [Republic of Korea](https://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

For more information and media ***requests*** please contact: Gunnar Theissen at (+41 22 917 9321 / gtheissen@ohchr.org) or write to srhousing@ohchr.org

For ***media inquiries*** related to other UN independent experts: Jeremy Laurence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Tag and share - Twitter:**[**@**](http://twitter.com/UNHumanRights)**adequate housing and Facebook: [righttohousing](https://www.facebook.com/righttohousing)**

This year i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by the UN on 10 December 1948. The Universal Declaration – translated into a world record 500 languages – is rooted in the principle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It remains relevant to everyone, every day. In honour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is extraordinarily influential document, and to prevent its vital principles from being eroded, we are urging people everywhere to ***Stand Up for Human Rights***: [www.standup4humanrights.org](https://www.ohchr.org/Lists/News/www.standup4humanrights.org).